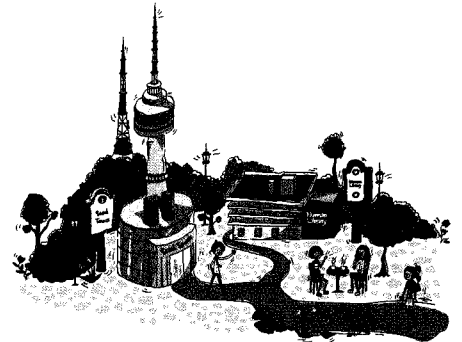


서울시 커피자판기 급격히 줄고 있다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 9,463대에 불과
지난 2009년에 비해 34,3% 감소



서울시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가 불과 9,463대로 채 1만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최근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9,463대의 수량은 서울시 커피자판기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지난 2009년에 발표 자료는 14,387대였으니 무려 34.3%가 줄어들었다. 커피자판기의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는 결과를 산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까? 충격적이지만 열악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커피자판기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줄고 있나?

서울시에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가 1만대 이하로 급락했다는 사실을 실로 충격적이다. 커피자판기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아웃도어 커피자판기의 시장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3년간 아웃도어 커피자판기는 경쟁력을 잃고 급속히 시장이 줄어들었다. 경쟁관계에 있던 편의점 커피가 소비자 입맛에 맞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급성장하고 있는 사이, 아웃도어 커피자판기는 불결한 설치환경, 위생불신 요인으로 점점 코너에 몰렸다. 영업효율이 떨어지는 커피자판기들에 대한 개인 운영자의 선호도도 떨어져 퇴출당하는 자판기들이 크게 늘었다. 과거 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던 커피자판기들은 이제 드물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아웃도어의 위기는 곧 개인 운영자 시장의 몰락을 의미한다. 과거

서울시 자치구별 자판기 설치 현황

순위	자치구	계
1	종로구	698
2	노원구	505
3	성북구	493
4	강남구	484
5	구로구	482
6	관악구	443
7	영등포구	441
8	강북구	438
9	중랑구	414
10	서초구	404
11	동작구	401
12	마포구	374
13	중구	360
14	서대문구	343
15	강동구	336
16	광진구	330
17	동대문구	328
18	송파구	321
19	은평구	311
20	양천구	298
21	강서구	292
22	도봉구	287
23	성동구	283
24	용산구	263
25	금천구	224
합 계		9463

방문판매로 유지되던 개인 운영자 시장이 점점 배리트를 잃어 가고 있고, 이제 커피자판기 운영은 전문 운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문 운영자 시장도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운영 효율 앞에서 커피자판기 운영수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커피자판기 운영을 포기해야하는 로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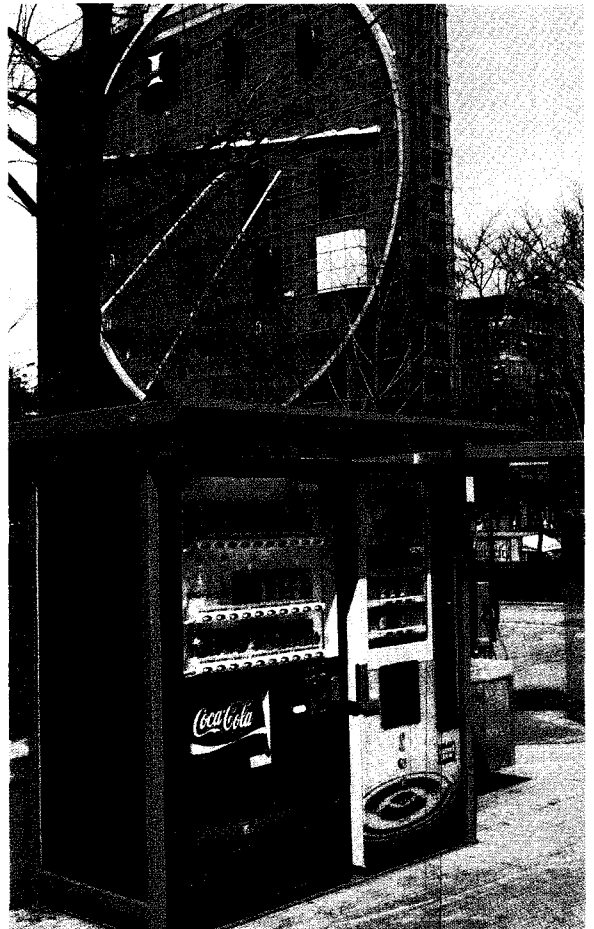
대내외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할 때 서울시 커피자판기의 감소는 운영효율 감소 문제가 가장 크다. 자판기 커피를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많이 안마시고, 위생문제 등의 요인으로 가급적이면 꺼리고 있다. 한마디로 커피자판기의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진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받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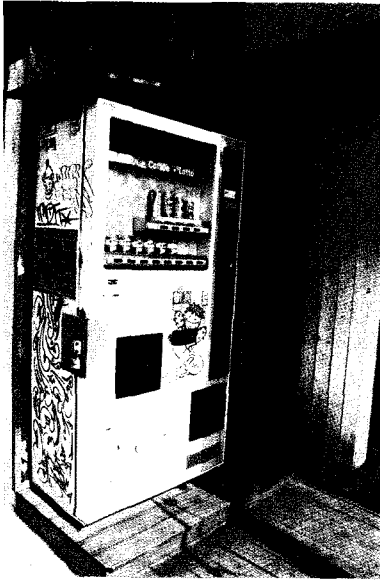
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데이터는 오늘의 현실을 반면교사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던져 준다. 커피자판기의 경쟁력을 어떻게 배양할지, 산업계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

종로구가 가장 많고 노원구가 2위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가 9,463대란 사실은 서울시 커피자판기 운영 대수의 총계를 의미하진 않는다. 영업신고를 안한 채로 운영하는 커피자판기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 시장침체 요인으로 중고자판기의 유통이 증가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신고된 자판기 수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전체 커피자판기 수량은 얼마나 될까?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렵잡아 6000~7000여대선의 미신고된 커피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 운영 중인 커피





피자판기 총계는 15,000~16,000대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영업 신고된 커피자판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종로구가 608대로 가장 많다.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영등포구가 866대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에는 441대로 6위로 밀

렸다. 반면 종로구는 지난 2009년 657대로 7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들을 놓고 보면 영등포구는 지난 2년 사이 자판기가 크게 줄고, 종로구는 소량 감소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웃도어 로케이션의 문제이다. 영등포구에는 종로구보다 훨씬 아웃도어에 위치한 자판기가 많았었다. 자연 퇴출되는 아웃도어 자판기들의 수량도 영등포구가 타 구들에 비해서 많았다. 즉 개인운영자들이 커피자판기를 서민 영업용기기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결국 아웃도어의 급격한 시장급락은 영등포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반면 종로구는 관공소, 오피스 타운 자판기 운영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아웃도어 커피자판기 시장의 급락을 덜 받는 자치구의 중의 하나이다. 이렇다보니 당당히 1위로 등극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치구별 2위는 노원구로 총 505대의 자판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727대로 5위를 기록했었다. 노원구 역시 타 구에 비하면 아웃도어 로케이션 영향이 크지 않은 곳이다.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학원가, 쇼핑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자판기 감소도 타구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이다.

강남보다는 강북의 자치구들이 자판기 강세

3위는 성북구가 493대를 나타냈다. 이곳은 다중이용시설(관공소, 대학교,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판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국민대, 서경대 등 대학교에 많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2009년 대비해 강남구는 자치구별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 총 484대 설치로 4위를 기록한 것. 지난 2009년에는 533대로 하위권인 16위를 기록했었다. 자판기 수량 감소치는 49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남구가 자판기 변동량이 적은 것은 꼭 있어야 할 곳 위주로 커피자판기가 로케이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로케이션 비중은 낮은 반면 오피스 타운이나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로케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이색적인 점은 용산구의 자판기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2009년에는 479대로 18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263대로 꼴찌에서 2번째인 24위를 기록했다. 자판기 수량이 216대나 줄었다. 재개발 영향으로 아웃도어 커피자판기들이 많이 철수된 영향이 가장 크다.

최하위 자치구로는 금천구로 224대의 자판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구는 414대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9위권을 나타냈다.

종합해 볼 때 소득수준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의 자치구들이 강남권이나 신흥구들보다 커피자판기가 더 많이 설치된 양상을 보였다. 자판기가 부유층보다는 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유통기기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결과이다. 하지만 그 비중은 2009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자영업소 등의 서민 영업용기기로서의 창업이 과거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